

# 지역쇠퇴 대응에 따른 지역학의 역할

조 광 식<sup>1)</sup>

## ■ 목 차

- .....
- I.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지역학’
- II.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
- III.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현실
- IV.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실천 사례
- V. 지역 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
- .....

---

1) 행정학박사/ CHO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 지역쇠퇴 대응에 따른 지역학의 역할

## I.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지역학’

### 1. 지역 쇠퇴의 소멸 위기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총 인구의 경우,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 5,296 명을 정점으로 2065년 4,302만 명(1990년 수준)으로 감소 전망

(의성군 현재 총 인구 52,595명)

- 지역의 인구사회적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쇠퇴, 경제·산업 기능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
- 도시쇠퇴(Urban Decline),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2014)는 일본을 사례로 지방의 경제와 고용의 기초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이른바 지방이 소멸과정을 들어섰다고 진단함.

### 2. 지역사회 공간적 변화에 있어 ‘지역학’의 의미

- 지역쇠퇴·축소·소멸이라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있어 ‘지역학’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음.
- 첫째, 쇠퇴, 축소 혹은 소멸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자산 또한 동시에 소실될 위기에 처하게 됨.

문화정체성과 문화경관이 훼손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은 어렵거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라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되어온 지역의 생활문화 양식, 문화자산 및 경관을 기록,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은 지역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재창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이 될 것임.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sup>2)</sup>,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sup>3)</sup>, 지역재생(regional regeneration)<sup>4)</sup> 등 일련의 지역 및 장소활성화와 발전전략에 '지역학'이 대두되고 있다.

### 3. 지역 '쇠퇴'와 '재생'에 '지역학' 활용으로 대응 필요

- 지역의 '쇠퇴'와 '재생'에 있어 지역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존·전통 및 역사문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그리고 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 및 연구를 지칭하는 '지역학'(地域學) 혹은 '지역연구'(地域研究)가 매우 중요하다.

- 지역 현안 문제의 관점에서 '지역학'을 접근하여 지역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환경, 지역의 현안 등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축적된 논리체계를 이루어 지역의 비전과 정책제안,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 지역의 주민과 기업인, 행정기관 등이 기업과 관광객 등에게 특정 장소를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

3) 지역 재생을 위한 새로운 개념. 지역 브랜드, 지역 브랜딩이란 용어가 자주 쓰여지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 개발을 뜻하고 지역의 과제 해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장소를 브랜딩 한다'고 하는 개념.

4) 경제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개발 위주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낙후된 도시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하는 일.

## II. 지역의 사회·공간적 위기와 위기극복

### 1. 지역의 위기와 이의 대응

- 지역의 변화와 위기 현상은 비단 국지적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임.

- 과거 지역변화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과소지역의 출현과 지역 간 격차 심화라고 한다면, 현 시점 혹은 미래에 전개될 지역의 변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은 농촌과 도시의 구분 없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이러한 위기는 해당 지역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대안적 지역발전의 가치를 1)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sup>5)</sup> 2) 재지역화

(relocalization)<sup>6)</sup> 3) 공공성의 확보로 개념화함<sup>7)</sup>.

### 2. 지역학 :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

- 대안적 지역발전에 대한 가치 실현은 지역에 대한 성찰, 지역을 둘러싼 제반환경 및 주민들의 삶에 대한 탐구로부터 비롯될 것임.

- 지역학이 일상 생활권을 지역 주도의 주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지역학이 지역 주도의 주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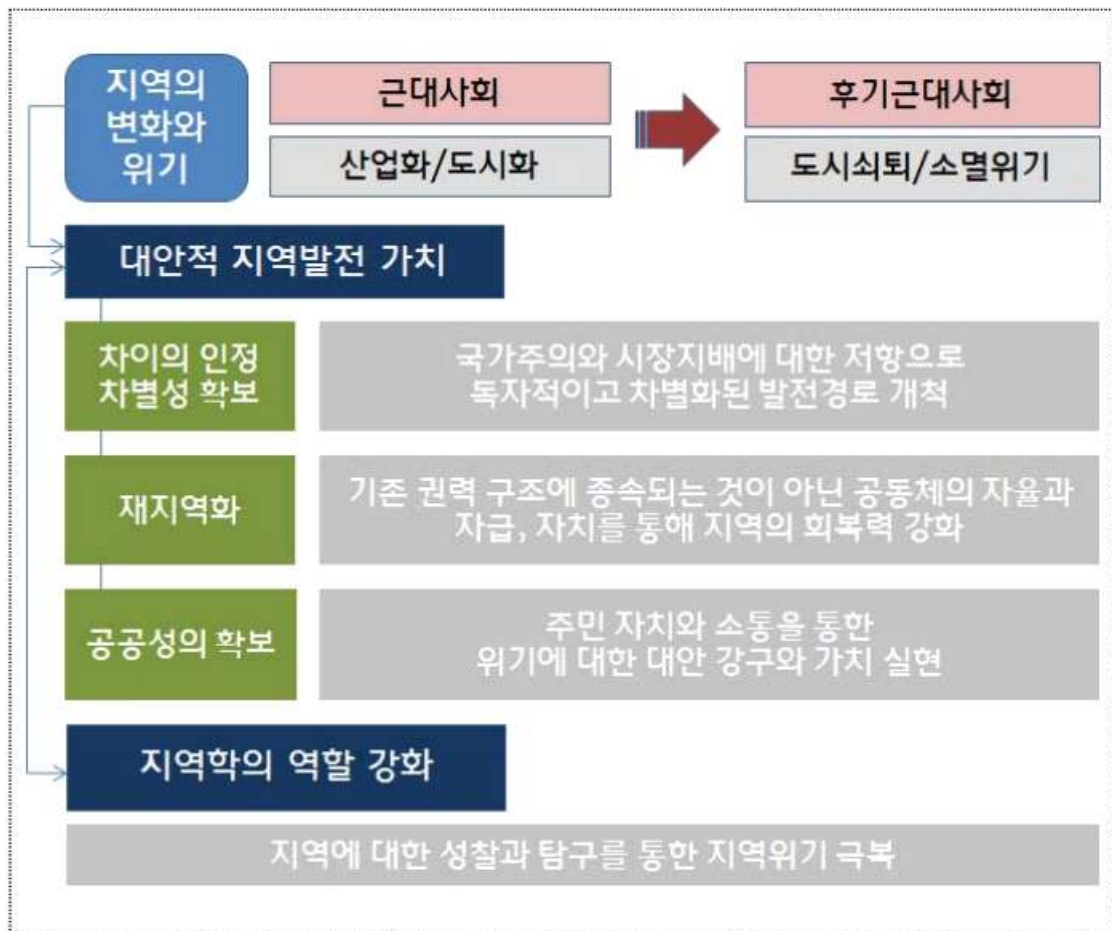
- 문화는 이러한 지역학의 핵심적 탐구 대상임과 동시에 지역학에 실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 차이의 인정과 차별성의 확보는 지역이 처한 제반 여건과 물질·인적·문화적 자산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차별화된 경쟁력과 경로의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6) 재지역화(relocalization)는 국가와 시장이 가져갔던 힘이 다시 지역 공동체들로 귀속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지역이 자율, 즉 자급(생계의 자율적 해결)과 자치를 회복하는데 있다.

7) 공공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와 소통을 통한 위기에 대한 대안 강구와 가치실현을 뜻한다.



〈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학의 역할 〉

### Ⅲ.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가치와 현실

#### 1. 지역학의 새로운 접근 : 미래지향 · 참여 · 실천적 지역학

-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활발한 활동과 이에 따른 높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학문적 접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회고적 접근’<sup>8)</sup>으로 인해 대중 친화적이지 않고 지역현안 대응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 앞으로 지향해야할 지역학의 접근방향은 정치·사회·문화·경제·지리·역사 등 다분야 간의 융합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sup>9)</sup>지역학을 지향해야 한다.

#### 2.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

##### 1)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은 개발 혹은 쇠퇴에 의해 소실될 위기에 놓인 지역 내 공공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공동체성 및 시민의식 강화,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정정숙, 2014).

또한 지역학 연구를 통해 발굴된 일상생활의 경험과 기억, 지역의 설화 등은 이야기 산업<sup>10)</sup>에 중요한 자원이자, 수요자와 밀착된 특성으로 인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이상열·노영순, 2017). 예를 들어, 최근의 TV 드라마나 영화들은 국고 문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나 설화 등에 주목하여 최근 인기를 끌기도 했다.

#####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공동체 중심의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로컬리티 기록화’를 들 수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주목해야 할 양상은 기록 생산 주체들의 참여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기억의 담당자이

8) 지역학은 정체성이라는 미명 하에 역사주의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지역의 과거 사실을 탐구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추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과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

정책과정(Process): ① 의제설정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10) 이야기 산업이란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3.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

지역이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에 관계 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재활성화 사업(도시재생, 장소마케팅,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할 경우, 장소 본연의 정체성을 왜곡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시재생 등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전과 후의 로컬리티(지역성)를 계승·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여진원·장우권, 2016).

따라서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때, 반드시 기록화에 기반한 지역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지역학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개선 방향

- 불안정한 조직과 예산 제약에 관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전담 인력의 문제로, 전문적인 연구인력 양성과 함께 구술사, 해설사 등과 같이 주민·공동체 참여를 지원할 인력의 확보도 요구되므로, 지역학과 지역 내 일자리·일거리 창출을 연계한 인력수급 모델 개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역학과 관련 사업을 둘러싼 협력과 연대가 부족하므로, 지역학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이 상호 교류·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지역학 교류 및 정보 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미래지향·참여·실천적인 지역학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특히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되는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학의 방향 및 제약요인 개선방안 >





#### IV.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실천 사례

##### 1. 국내 사례

###### 1)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연구센터는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제주학 진흥의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대두하면서 출발한다. 특히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재편되면서 제주문화를 이용한 미래사회 발전의 엔진 기능을 수행할 제주학 진흥 및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① 연구 및 연구지원 ② 아카이브 ③ 교육 및 인력양성 ④ 교류 및 네트워크 등 크게 4분야로 구분되며, 직접 연구사업 혹은 외부기관 지원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지역학(제주학)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기능 및 업무

기능 및 업무	내용
연구 및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지원, 협동연구</li> <li>•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연구 수행</li> <li>• 제주어 보전 정책 및 대중화 관련 연구</li> </ul>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학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자료, 연구성과,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li> <li>•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 사진류, 해외자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 정립 작업 수행</li> </ul>
교육 및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학 관련 시민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중 교양서적 및 교재 발간</li> <li>• 역량있는 제주학 관련 전문 연구자 지원, 레지던스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학 연구 후속세대인 신진 연구인력 지원 양성</li> </ul>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제주학연구 네트워크 구축</li> <li>•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진흥기금 조성</li> <li>• 해외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2016a),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 계획

## (2) 주요 사업

### ① 구술사(Oral History 口述史)<sup>11)</sup> 교육사업

- 제주학 아카이브(archive)<sup>12)</sup> 구축과 관련하여 ‘구술사’는 중요 방법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 및 정치 중심의 기록 유산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 심화 교육과정 등 구술사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구술사 교육은 제주학과 구술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제주학 자료수집에 시민참여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는 전문가 양성 단계인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학 연구센터는 이를 통해 제주학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의 토대를 세우는 역할 및 시민 연구자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표 2>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기초교육 내용

화차	2016년 교육내용	2017년 교육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강식</li> <li>한국에서 구술사의 의미와 성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강식</li> <li>한국에서 구술사의 의미와 성과</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자료 수집은 어떻게 기획되고 진행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3영상과 구술사 : 몸의 증언, 무명천 할머니</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자료 수집에서 영상의 생산과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일제주인과 구술사: 경계인의 삶과 구술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아카이브 : 정리에서 활용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여성과 구술사 : 살암사난 살았주</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연구에서 군위안부 구술채록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옹기와 구술사 : 돌가마 옹기에 제주 사람 이야기 그득</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를 통한 제주해녀의 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속의 역사, 제주도 본풀이의 구술사</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언과 증언으로 복원하는 제주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지역 구술 자료 수집의 사례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술사 문화콘텐츠: 제주신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쟁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한국 구술 자료관 구축과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강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강식</li> </ul>

\* 출처 : 제주학연구센터(2016b), 2016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학연구센터(2017), 2017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참조

- 11) 과거의 사건 또는 역사 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들이나 증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채록하고 그 구술 증언들에 의거해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방법론이다.
- 12) ‘기록보관소’, ‘기록보관소에 보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백업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한 곳에 파일들을 모아둔 것’.

## ② 제주 마을기록사업

- 마을기록화 사업은 기록은 물론 활용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마을대사전(디지털 마을지 편찬), 마을 기록관 및 공동체 정보 센터 공간설치, 해당 마을 학교 교육 자료 이용, 마을 기록자 역량강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제주문화산업(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산업), 제주구술자료관(센터) 구축, 제주학 빅데이터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한계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아 일부 마을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2) 충북학 연구소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의 전통성과 역동성을 탐구하여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9년 충북발전연구원(現 충북연구원) 내 부설기구로 설치되었다.

### (1) 주요 기능

충북의 역사. 문화. 민속 등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충북학 연구 기능, 충북을 넘어 중원문화권의 문화원형 발굴과 활용방안 연구기능, 충북도사(忠北道史) 등 각종 사료 및 연구저널(충북학) 편찬, 기타충북 문화정책 개발과 관련 업무 등이다.

### (2) 주요 사업: ‘달래강 123 인문예술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① 달래강 유역의 역사, 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사업 ②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한 ‘달래강 123 예술프로젝트 ③ 지역언론(중부일보)과 협력 사업인 ‘달래강 리포트’가 있다.

### 3) 전주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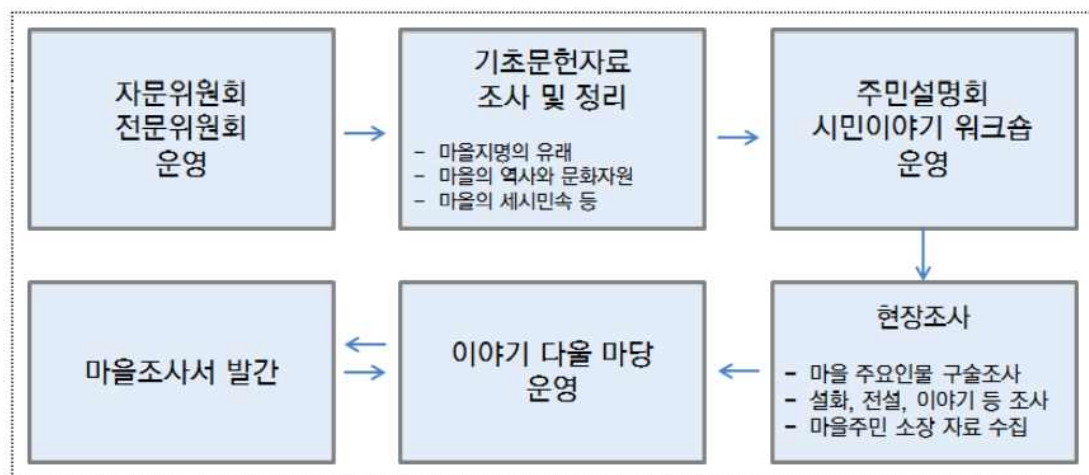
#### (1) 현황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한 문화 예술 분야 공공기관으로, 2006년 창립 초기부터 지역학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20) 특히 재단은 구술조사를 기본으로 한 이야기 개발과 활용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지역학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학의 실용적이고 실천적 활용(구술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의 문화, 예술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 (2) 주요 사업: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과 ‘마을술사’ 사업

##### ①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

- 고유한 전주정신의 발현으로 전주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회복, - 지역문화의 실체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규명, - 지역주민의 문제법(問題法) 개발과 지역문화자원의 개발,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전주시 마을조사 업무과정 >

##### ② 마을술사 사업

- 마을 정체성 찾기와 기록화의 주체 설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마을 주민의 역할 정립 및 조직화, - 마을술사 양성을 통한 지역개발

<표 3> 마을술사의 역할 개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술사 (洞心述史) : Village Archivist 마을을 기록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이야기의 조사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유래와 역사, 문화자원, 소소한 이야기 등을 조사</li> <li>- 마을의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기록하여 미래유산으로 전승</li> </ul> </li> <li>○ 마을 이야기 문화 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이야기를 조사 정리하는 문화 공동체(동아리) 조직</li> <li>- 마을 내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술사 (洞心述士) : Village Guide 마을을 설명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 등을 설명</li> <li>- 외부사람들에게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li> <li>-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li> </ul> </li> <li>○ 마을 내 방과 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교육</li> <li>-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유학년제 학습으로 마을 교육 진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술사 (洞心術師) : Village Designer 마을을 설계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li> <li>- 마을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참여</li> </ul> </li> <li>○ 마을 공동체 문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모임 운영</li> <li>- 마을 공동체 문화프로그램(골목길 축제 등) 운영</li> </ul> </li> </ul>

\* 출처 : 전주문화재단(2017), (2017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보고서, p.19 내용을 연구자 정리

< 사례별 특징과 주요 내용 >

구분	배경	목적	주요내용	시사업
제주 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민들의 노령화와 감소</li> <li>• 국내외 방문객과 외국인 정착인구의 급증, 이에 따른 '제주다움'의 소실 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다운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한 주민 참여형 지역학 연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중심의 마을 구술사 양성</li> <li>• 마을기록화 사업 (구술 OS 등 다양한 분석 기법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간 친밀성 확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미래비전 설계</li> <li>• 조직 및 예산 확보, 인력 확충,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천 유역의 쇠퇴 (인구감소)</li> <li>•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문화 등 지역의 고유성 훼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천과 주변 지역에 내재된 가치 발굴 및 창의적 콘텐츠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천 유역의 역사 문화 및 인문자원 조사</li> <li>• 지역학과 문화예술의 결합</li> <li>• 지역 언론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관심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및 문화 예술인 참여형 지역학 프로젝트</li> <li>• 달천유역 자치체간 협력 및 발전 모색</li> <li>• 단발성 프로젝트로서의 사업 한계(제도 구축 및 자원 필요)</li> </ul>
전라북도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로 인한 마을의 역사·문화 소실 위기</li> <li>•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참여형 마을기록과 이를 활용한 마을발전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술과 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술사' 양성</li> <li>• 마을미니박물관 (에코뮤지엄) 구축 등 마을관광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주민 협력형 지역학 모델 구축</li> <li>• 지역 '미래유산'의 가치 재조명</li> <li>•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기반 구축 필요</li> </ul>



## 2. 국외 사례: 일본 지역학

<표 4> 일본 지역학 연구의 특징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지역쇠퇴와 공동체성의 훼손</li> <li>•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li> <li>•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전국적 확산과 지방소멸의 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성의 회복과 내생적 주민조직의 재편이 필요했으며,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방 또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주민들로부터 발굴하고 지역만들기 등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li> <li>• 지역의 쇠퇴와 연계한 지역 만들기와 재생</li> <li>• 생태학습의 측면에서 사람 만들기</li> <li>•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자원의 활용</li> </ul>
주요 내용	<p>(중앙정부) 학술적 지원 혹은 지역 재생과 관련된 연관사업 지원  (지자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지역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역학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조직 중심의 마을조사 및 관련 사업 추진</li> <li>• 구술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li> <li>• 동네박물관(에코뮤지엄)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li> <li>• 마을주민 및 방문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 1) 광역자치단체 : 교토부(京都府)

- 교토 지역이 지닌 ‘일본 문화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교토 및 교토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 발전해온 문화를 국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신하는 데 있어 그 핵심으로 ‘교토문화연구’와 ‘교토학(京都学)’을 설정하고 있다.

- 교토 지역에서는 교토학의 성과를 국내외에 발신함으로써 교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교토에 대한 흥미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7월에 「교토부립지역학·역채관조례(京都府立京都学·歴彩館条例)」를 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부립종합자료관을 ‘부립교토학·역채관’으로 개편하였다. 조례에서는 교토부립교토학·역채관이 국제교토학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역

채(歷彩)란 “단계별로 간다”, “대대에 걸친”이라는 의미의 ‘역’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채’라는 단어를 합쳐서 시대를 넘어서 문화와 역사가 빛을 내며 계속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교토부립교토학.역채관은 ‘세계와 연계한 교토학 연구.교류 거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류.발신 거점’, ‘교토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공개거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기초자치단체 사례 : 하기시(萩市)와 쓰시마시(津島市)

### (1) 하기시

- 일본 야마구치현 북부에 위치한 하기시는 698.9km<sup>2</sup> 면적에 인구 약 5만 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축성된 성읍 도시로서, 201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시대(1868~1912) 일본 산업혁명 유산들이 있는 도시다.

- 하기시의 지역학은 ‘동네박물관’ 조성 및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기시는 지역쇠퇴에 대응하여 1998년에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동네박물관 조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동네박물관’ 프로젝트(萩市, 2003)를 추진하였다. 사업의 기본구상인 「하기시 동네박물관 구상」을 수립하고 걷는 길 구축 및 시민 해설가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 도성, 메이지유신 등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핵심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을 조성하였다.

### (2) 쓰시마시

- 쓰시마시는 “학문의 힘을 지역에, 지역의 힘을 학문에”를 구호로 지역 만들기과 연계하여 지역학으로서 쓰시마시역학(對馬市域学)을 육성하고 있다. 쓰시마시의 지역 만들기는 쓰시마시가 2013년 총무성의 「지역학연계 지역활력창출모델실증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쓰시마시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對馬市域学連携地域づくり推進計画)」(2014), 「제2차 쓰시마시종합계획(第2次對馬市總合計畫)」(2016) 및 「쓰시마시 마을.사람.직업창생종합전략(對馬市まち.ひと.しごと創生總合計畫)」(2016)에서 제시된 과제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 2014~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쓰시마지역학 연계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에서는 ‘학’의 범위를 대마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와 거기에 소속된 교원, 학생을 포함하고, 전문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 학제적 영역의 학문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때 ‘지역’의 범위는 이미 선진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과 지도자의 수용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가미아가타초의 시타루(上県町志多留)를 시범지역으로 지역 만들기 활동과 연구 거점화하고, 주변 해역을 포함한 대마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도록 설정되었다. 계획단계는 1단계 기반 구축기(2014~2016), 2단계 발전기(2017~2020), 3단계 자립적 전개기(2021~)로 설정되었다.

### 3) 마을 단위 사례 : 일본 히로시마현 카와네(川根) 마을

- 카와네 마을은 전형적인 산촌이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총면적의 84%가 삼림이며, 마을을 이루는 19개 취락은 산지의 각 계곡에 분포한다. 지금은 아키타카타시의 한 마을에 불과하지만 1956년 이전까지 기초자치단체로서 카와네촌(川根村)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전후의 시정촌 합병에 따라 인근 2개 촌락과 함께 타카미야정(高宮町)으로 재편되어 행정자치권을 잃게 되었다. 그 후 2004년에 최근의 시정촌 합병(平成の大合併)으로 인근의 5개 정(町)과 합병되어 현재의 아키타카타시로 재편입되었다. 그 결과 카와네 마을은 농촌 자치단체인 아키타카타시 중심지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오지가 되었다.

- 카와네지역진흥협회의 주된 초기 활동은 과소화로 인해 활동이 정지되거나 위축된 전통문화의 재생이었다. 즉, 기존의 각 취락 단위로 행해지던 전통문화행사(모내기 전통무용(はやし田植), 망자위로무용(盆踊り) 등)가 과소화로 인해 자연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카와네지역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들 전통문화를 카와네 마을 전체로 복원 계승하는 시도를 하였다.

- 인구 수백 명의 마을에 불과하지만 각 취락 단위의 전통문화행사는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주민조직인 카와네지역진흥협회로의 재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카와네지역진흥협회는 각 취락의 전통문화 계승자들을 협회의 문화부로 결집 시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카와네지역진흥협회가 각 취락 단위의 전통문화 유지기능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 V. 지역 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1. 기억(Remembrance) 2. 회복(Resilience) 3. 재생(Regeneration) 등 '3R'로 정의

1. **기억(Remembrance)** : 지역쇠퇴 혹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역사, 사람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발굴·계승하고 미래로 전승함을 의미

2. **회복(Resilience)** : 지역학은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축소되고 교란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되찾는데 기여

3. **재생(Regeneration)** : 지역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집대성함으로써 지역재생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지역쇠퇴 시대에 지역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 〉

-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역학의 지향성으로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공동체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을 제시. 이러한 지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과 공공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화정책'과의 결합이 요구됨.

- 또한 지역사회 변화의 직접적이고 실제적 대상인 소지역(기초자치단체와 마을)차원에서 이러한 선순환 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참고문헌

- 노영순·이상열, 「지역쇠퇴에 대응한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권, 2012, p.3-44.
- 여진원·장우권, 「도시기록화 사례연구-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권 제2호, 2016, p.387-416.
-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최영근,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논문, 2020.
- 한상헌 외,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19.
- 増田 寛也, 「地方消滅」, (2014), 김정환 옮김, 「지방소멸」, 서울: 와이즈베리.